

유정복 시장 “한·중 교류 신르네상스 시대 이끌겠다”

인천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마무리...개막식서 기조연설 특별 기획 청년대화·기업인 비즈니스 회의 등 진행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인천이나포럼 2022 국제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인천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인천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한국유라시아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인천이나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창립했다. 매년 포럼 사업을 집중하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그간 인천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상생·창조·소통의 미

래지향적 한중관계와 인천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1부 개막식에서 인천이나포럼의 조직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발전적 한중관계를 위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의 협력을 통해 한·중 교류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이어온 프론티어로서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부 특별기획 청년대화에서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고 환경 및 문화교류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중간의 상호 인식의 차이를 발표한 한국외국어대 LD 학부팀 참가자는 “인천이나포럼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한중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이나포럼이 지속적인 한중간 교류의 장이 돼 양국의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3부 학술단체 공동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양대 국제대학원 문흥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제질서 재편기 한중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더 나은 한중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학술단체 대표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4부 비즈니스 회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차이나챌린저스 데이(China Challenger's Day)’로 한중 기업인들이 참여해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인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협력행사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한중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개최됐으며, ‘한중청년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인천이나포럼의 다양한 연중사업 영상이 행사장 로비에

서 상영돼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추귀홍 전 주한중국대사연중사업 영상이 행사장 로비에

부 시장들이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천과의 우정과 협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인천 서구가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을 연결해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서구 제공)

서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설치

무인시스템 운영 증가세...신속 응대·효율적 관리

인천 서구가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 11곳 등을 연결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영주차장이 점차 유료화되고 무인시스템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에게 신속한 응대와 효

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드경기장 내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해 주차요금 정산, 안내 등 통합관리를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24시간 무인 운영 주차장 11곳을 관제센터에 연결했으며 앞으로 신속 또는 유료전환 되는 공영주차장도 연결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관제 구축을 기반으로 주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1·8부두 재개발 등 패착사업 전면 재검토”

인천시의회 행안위 신성영 의원 5분 발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함께 인천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러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증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느냐”면서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인천발 KTX 신속 연결 사업추진도 상주인구의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상주인구 증가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민선7기 전임 시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도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강화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신규부여·훼손 등...조달단가로 공급 주민부담 완화

인천 강화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시 신청인이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한다. 그동안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건물번호판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 조달단가로 공급된다. 소형(길, 번길) 번호판은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은 1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오는 12월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아울러,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맞게 자체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수도 있다. 기타 자제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주소팀(☎930-3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함께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다같이 떠나는 신흥동 이야기” 주민총회 성료

중구 신흥동, 주민자치회 열어 공론의 장 마련



중구 신흥동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중구 제공)

인천 중구 신흥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진원)는 지난 24일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2022년 제2회 신흥동 주민총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다같이 떠나는 신흥동 이야기”와 함께 진행돼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로 출범한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그동안의 주민자치회의 활동 경과와 보고 및 2023년도 신흥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과 사업의제를 결정하는 신흥동 주민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다같이 떠나는 신흥동

이야기 마을 행사”는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동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지난 2년여 간의 갈증을 깨고 주민자치회 및 각 자생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마을 잔치의 장이 됐다.

김정현 구청장은 “신흥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총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진원 주민자치회 회장은 “지난해 제1회 주민총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 제2회 주민총회는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과 사업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옹진군 덕적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점등

군민야간체육활동 여가 활성화 기여

인천 옹진군 덕적면 종합운동장 조명타워가 26일 불을 밝혔다.

덕적종합운동장 조명타워는 LED투광등 8개가 탑재된 높이 20m의 조명탑으로 운동장내 4곳에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민들의 야간 체육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용운동장이 없는 덕적이고 야구부원들이 이번조명타워 설치로 야간훈련이 가능하게 되어 덕적이고 야구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조명탑 설치로 남녀노소 누구나 주야간 체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체육활동 등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송지연 기자 sky@